

내달 3일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전주시, 한옥마을·경기전 내 전주사고서 행사 개최

실록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날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전주에서 재현된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호이자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특히 전주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유일한 도시이다.

전주시는 오는 6월 3일 오후 1시 한옥마을과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정기적으로 말려 습기를 제거하고 충해로부터 보호하는 포쇄의 재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사관행렬과 기념식 및 영접례, 포쇄재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운영된다.

포쇄 사관행렬은 '포쇄를 시행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관과 그 일행의 행렬을 재현하는 것이다.

은행로와 최명희길, 한지길을 거쳐 태조로로 진입해 경기전 내 전주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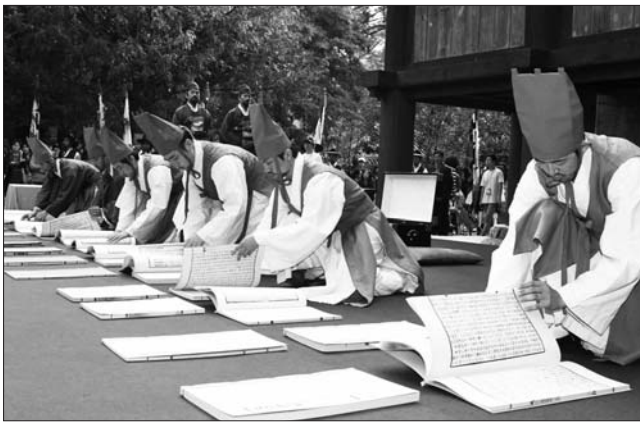
로 향하게 된다. 또 은행로 사거리와 경기전 앞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포토타임도 가질 계획이다.

조선왕조실록의 포쇄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진행하고, 전주사고에 포쇄사 관행렬이 도착하면 전주부윤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관을 맞이하는 영접례와 함께 본격적인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재현된다.

메인 행사인 실록의 포쇄는 전주사고 앞에서 진행한다. 사관과 전주부윤 일행이 4배 한 후 사관 일행이 사고 안에 들어가 실록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교생들을 시켜서 실록계를 사고 밖으로 꺼낸다.

이후 실록계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꺼내서 바람에 날리는 작업을 시행하고, 말리는 작업이 끝나면 천공 및 찰포 가투가 든 자루를 실록계에 넣고 초주지 및 붉은색 보자기를 실록계 바닥에 넣는다.

실록계에 조선왕조실록을 넣으면 자물쇠를 채우고 사관이 수결(手決)한



실록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바람에 날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가 전주에서 재현된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종이를 밀봉한 후 사고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 포쇄에 대한 보고서인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한 후 포쇄인원들이 전주사고 앞에서 4배하면 조선왕조실록 포쇄 행사가 모두 마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주는 조선왕조실록

을 지켜낸 역사의 도시이자 감영목판이나 한글고전소설 등 완판본이라는 책을 찍어낸 출판의 도시"라며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서류 꾸며 3500만원 횡령 장수군산림조합장 구속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횡령한 장수군산림조합장이 구속됐다.

장수경찰서는 지난 26일 장수군산림조합장 김모(56)씨를 업무상횡령과 산림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혐의로 토목업자 김모(54)씨와 골삭기 운전사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2012년과 2016년 7월 장수군 등이 발주한 임도 하자보수 공사 시행을 맡은 뒤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토목업자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밀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토목업자 김씨 등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에 미뤄 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상급 비보이들의 화려한 댄스 배틀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본선대회 성료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축제인 '제11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본선대회가 청소년 등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전주시가 주관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 메이저급 비보이 크루 32개 팀 중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선발된 8개팀이 본선에 출전해 수준 높은 배틀로 공연장을 꽉 채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본선대회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2위팀과 3위팀에는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본선무대에는 초청가수인 사이먼 도미닉이 관객들과 호흡을 맞췄으며, JUST JERK(저스트절크)와 LOCK N LOL(락앤롤)이 멋진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공연장 밖에서는 부대 행사로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청소년 등 시민 모두가 직접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본 대회에 앞서, 주최 측은 지난 20일 중앙살림광장에서 '3ON3 울장르 합합믹스배틀대회'를 진행하고, 27일에는 '1ON1비보이배틀대회'를 개최해 축제 열기를 고조시켰다.

27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제11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심사위원으로 초빙된 위켓(WICKET)과 알코릴(ALKOLIL)이 비보잉 스킬을 공유, 비보이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김민근 기자

'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지난 4·13 20대 총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생기(70) 정읍시장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혐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큼에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등반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 매점 식품값 U-20 경기기간 내 '바가지'

축구팬들 지갑만 텅텅

통상 음료·컵라면 2500, 과자류 3000원에 판매
K리그 기간동안 판매되던 것보다 최대 1000원 비싸
조직위 '매점 판매가격, 위탁업체가 자유롭게 결정'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매점의 식품 판매 가격이 U-20월드컵 경기 기간 비싸져 축구팬들이 울상이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FIFA U-20 경기 기간 전주월드컵경기장 매점은 통상 음료 2500원, 컵라면 2500원, 과자류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프로 리그 기간 음료, 컵라면, 과자류가 각각 2000원에 판매되던 것보다 500~1000원 비싼 가격이다.

이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층에서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구 팬이며 매 경기 전주월드컵경기장 관람을 간다는 전모(전북대 3학년·여)씨는 지난 20일 열린 '한국대기니' 경기를 관람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매점을 찾았다.

하지만 음료 등을 구입하며 비싸진 가격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25%가량 비싸졌기 때문이다. 부모님 용돈에 의지해 생활하는 탓에 결국 처음 구입하려던 식품을 다 사지 못했다.

전시는 "세계적인 축구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고민 없이 입장권을 예매했다.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 2만5000원짜리 티켓을 구입했다"며 "티켓 구입에 적지 않은 지출을 한 탓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했는데 매점 가격까지 비싸져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같이 U-20 기간 매점 가격이 오른 이유는 경기장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소 프로축구 경기 때는 전북현대 측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하지만 U-20 기간에는 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매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월드컵조직위 측은 매점 운영은 위탁업체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장마다 매점 식품 판매 가격이 다르다. 운영 여건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며 "매점 판매 가격은 위탁업체가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말했다. /뉴스1

드론축구 선수단 출범식 개최

가장 먼저 창단한 전주에 이어 전국 29개 구단 출범
전주 드론축구단, '드론편스티벌 in 울산' 서도 친선경기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단을 창단한데 이어 전국 29개 축구단이 출범했다.

앞서, 전주시는 탄소소재와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이 융합된 드론축구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개발하고, 드론축구단을 창단한 드론축구의 중추도시다.

시는 26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드론축구단과 전국 동호회 선수단, 자치단체 선수단 등 총 3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준비를 위한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준비위원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이 각 선수단에 가입증서를 교부하고, 12개 시·도 지역별 지부장에 임명장도 수여했다.

한편, 전주시 드론축구단은 27일 울

산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2017 드론편스티벌 in 울산'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 드론축구 친선경기를 선보였다. /김민근 기자

군산 주택서 권총과 실탄 발견

군산시 옥산면의 한 빈집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이모(74·여)씨의 집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 1정과 가스총 1정, 실탄 3발이 발견됐다.

집 주인인 이씨는 지난달 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사용 여부와 출처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